

“자연을 가져오는 기업”

- 조이내츄럴 -



임형택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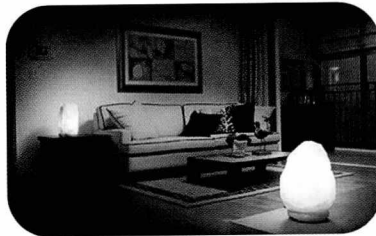
솔트크리스탈램프 국내위 기업

원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회사를 운영하던 조이내츄럴의 임 성택 대표가 소금으로 만든 램프를 처음 본 것은 2004년도 독일의 하노버에서 열리는 부활절보석박람회에서 였다고 한다. 박람회에 나온 회사의 기관지 천식이나 비염 그리고 냄새제거와 공기를 정화한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설명이었지만 천식으로 고생하던 임 대표에게는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과 자연의 멋스러움이 한껏 뿜어나는 이 제품에 매료되어

작은 사이즈의 램프를 하나 사 오면서 이 제품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2004년도 9월 가을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운송연대가 파업을 하던 날 모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서 솔트크리스탈램프는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소금

이라는 소재와 히말라야라는 신비감 그리고 건강과 웰빙이라는 문화적인 붐이 업그레이드 되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상품이 시중에 선 보인 것이다. 현재 조이내츄럴은 파키스탄의 쿠티라왈라에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물류의 원활함을 위하여 카라치에 물류창고를 설립할 예정이다. 조이내츄럴은 국내 판매 뿐 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의 시애틀과 L.A 그리고 뉴욕, 러시아, 중국, 일본에의 수출도 주력하고 있는 노력하는 기업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건강까지 챙겨주는 램프

처음에는 천식이나 비염에 좋다는 것 보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될 뿐 만 아니라 거실에 있는 온 갖 전자제품의 소란스러움으로 부터 해방구가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예술품이었다. 집에 놀러 온 많은 사람들이 소금 등을 보고 너도나도 구입을 부탁하는 바람에

초기에는 독일에서 비싼 값에 구입해서 주기도 했다는 이 램프는 아름다움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자자연연구소에서 실시한 음이온과 원적외선 방사시험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력을 확인하였다. 단위당 187이온스의 음이온과 94%이상의

원적외선방사능력을 입증하였다. 이것은

황토나 맥반석등 수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이것이 기관지 천식과 냄새제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국립상주대학 우 수영박사의 “암염램프와 식물생장 및 신선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자료에서 암염램프를 켜 놓을 경우 10~20%의 신선도가 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결함을 유지해 주는 램프

음이온은 곰팡이를 죽이는 살균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능이 공기를 정화하고 냄새를 발생시키는 곰팡이와 같은 각종 균을 죽임으로서 냄새를 원천적으로 없애 버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이 회사의 판매점에서는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전원 환불”이라는 자신감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요즘 “먼지 진드기”로 인하여 노약자나 유아들이 기관지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이 소금램프의 살균작용은 이 먼지진드기의 서식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여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케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음이온의 먼지 집진능력은 공기중의 공기를 단단하게 뭉쳐 가라앉게 함으로 공기를 정화해 준다는 것이 이 램프의 또 다른 특징이다. 실제로 대형의 소금 램프를 집안에 켜 놓을 경우 센서식 공기청정기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을 정도이다.



완벽한 품질보증을 위한 노력

조이내츨럴의 품질관리는 남다르다. 철저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회사인 독일의 VLM Bmbh사 그리고 파키스탄의 “Hymalayan Salt사”와 기술제휴를 맺었으며 독일의 미네랄 전문 회사인 “Andreas Bucher사”와의 정보제휴를 통해 압염으로 만든 여러가지의 제품을 선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램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이온 방출량을 일일이 테스트 하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별다섯개의 인증마크를 부착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또한 암석 안에 존재 할 지도 모르는 규소나 납 등의 유해한 중금속을 사전에 차단하여 혹시 모를 식용시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품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임을 감안하여 부품의 표준성을 높이고 사고시의 보상을 위해 별도의 생산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제품이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잡석으로 만든 램프가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습니다. 사우나 경기가 떨어지면서 사우나

시설제인 잡석염이 램프로 둔갑하여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건축재이고 전기부품도 매우 조악한 상태입니다” 품질과 혼란스러운 시장질서를 우려하는 임성택 대표의 말이다.

최저가격 및 최고품질을 지향한다.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물류센터가 완성되면 배송기간도 지금의 45일에서 18일로 줄어 듭니다. 긴 물류기간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물류 비용과 보관비용등의 과다 지출로 결국 고객에게 전가 되는 비용이었다고 한다. 이제부터 국내 재고를 줄임으로 인해 비용을 줄이고 이는 공급단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중에서 5만원 정도 하는 램프의 가격이 2만원 정도에 공급되었습니다. 이제 부터는 1만6천원대로 내려갑니다.

결국 소비자 가격이 10%이상 하락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현재 10만개 정도의 공급능력을 15만개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류의 효율화라고 봅니다.

자연에서 오는 여러가지의 아이템

“우리는 천연의 암석을 이용한 램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닉스나 수정으로 만든 램프, 감람석이나 흑요석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배어나는 캔들홀더, 준보석으로 만든 액자는 물론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세제 등도 우리의 향후 사업입니다.” 조이내츨럴은 “Joy from Natural”이라는 화두로 시작된 기업으로 집요하게 자연을 고집한다. 이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보석비누 SoapRocks는 일체의 화학적 물질을 배제하였으며 동물성지방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비누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미약하나 앞으로 이 회사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설립 4년차의 자라는 기업이다. (02-733-2858)